

2013 겨울 이야기 vol.172
www.holt.or.kr

홀트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홀트소식



겨울 이야기

동갑내기 박세나텔러(6)·차고은(6) 양은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영재교실에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귀여운 고은이의 어머니는 중국인이고, 활발한 세나는 부모님이 중국에서 생활했던 터라 중국어를 종종 사용한다네요. 두 가지 국어는 기본인 언어영재교실 학생답지요?

사진 | 이정탁 사진작가 후원·Studio H2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2호·기간 **발행일** | 2013년 12월 16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형(자원개발실실장), 홍미경(홍보팀장), 신미숙(후원팀장), 이수연(국내인양팀장), 김재현(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김은희(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3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홀트 이사장 유창기 이사(기독교신문사 사장) 이해경 이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임부용 이사(HICS 수석교수) 정용근 이사(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임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62)227-8877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전주영아원 T.063)222-1559 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사랑돌 www.holllove.or.kr T.053)756-0184 아름돌 www.holltarum.or.kr T.02)334-4614 아침돌·아침들학교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T.02)322-3325 대전클로버 T.042)583-4006
	해외원조사업 캄보디아 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성탄의 종소리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를 사랑해주신 홀트후원회원과 모든 후원자, 자원봉사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입양을 통해 아이들을 자녀로 맞이하신 입양가족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위탁가정에서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주신 위탁모 어머님과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로 홀트아동복지회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함 속에서도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입양특례법의 적용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해리홀트 씨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58년의 역사 속에 그동안 많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한 기관입니다. 저희는 어려움을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명을 찾아 더욱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한 해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2015년 창립 60주년을 준비하면서 홀트아동복지회가 추진해온 입양에 대한 평가를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기 위한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 및 기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미혼양육모의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교계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사무소의 자립 방안을 위해 인천과 광주에 건물을 매입했으며, 자치단체와 협의해 광주는 건물 구조 변경을, 인천은 건물을 신축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캄보디아에 이어 몽골에 아동결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앞으로 아프리카에도 지원사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홀트아동복지회는 복지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자원을 개발하며 전문성을 살려 그동안에도 쉽 없이 '사랑을 행동으로' 걸어온 길을 모든 사람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홀트아동복지회를 위한 더 많은 기도와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홀트아동복지회 회장 김대열 드림



두 동생을 위한 착한 약속

입양 동화 쓰고 인세 기부하며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박준일 군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이야기>

제2회 '홀트한사랑회 입양동화공모전'에 당선된 동화가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다. 두 어린 동생에게 한국 정서가 담긴 입양 동화를 들려주고 싶었던 형은 몇 달을 고민해 동화를 쓰고, '착한 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 생일부터 받았던 용돈을 모두 털어 책을 만들었다. 그 형은 지금 동생들을 위해 새 꿈을 꾸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사! 두 동생으로 인해 삶의 목표까지 바뀌었다는 박준일(19) 군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준 두 동생 윤일(5), 건일(3)이 삼형제를 만났다.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이야기
글·번역 _ 박준일
출판 _ 도서출판 맑은샘



입양은 민들레 같은 꽃

두 동생 덕분에 박준일 군은 여러 이름을 얻었다. 우선 '형'이란 이름과 '만아들'이란 수식어, 그리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입양가족'이란 타이틀도 받았다. 그 후 동생이 생겨서 마냥 기쁘고 좋았던 자신과 달리 주위에서 바라보는 입양은 아직 낯설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동생들에게 우리 가족이 만난 이야기와 입양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어 입양을 소재로 쓰인 동화책을 찾아 읽어주었지만 다수가 외국 번역물이어서 왠지 한국 정서와는 맞지 않다고 여겼다. 그러다 '직접 동화를 쓰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던 중 홀트한사랑회(홀트아동복지회 입양가족 가족모임)에서 주최하는 입양동화공모전을 만나게 됐다.

"아직은 입양가정을 제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는 없지만 입양은 제게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뜬이냐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꽃인 민들레처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존

재임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 민들레의 강인함을 상징으로 입양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과 입양을 통해 행복하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아이의 마음을 담았어요. 부족하지만 동생들을 위해 입양 동화를 선물 해줄 수 있어 기뻐요. 동생들은 제게 선물이거든요."

준일 군은 민들레를 친부모와 아이로, 동백나무 아빠와 진달래 엄마를 양부모로, 바람 아저씨와 눈꽃 아줌마는 입양가족을 이어준 사회복지사와 돌보이준 이웃들로 표현해 아기 민들레가 많은 사람들의 염려와 사랑으로 해남을 담은 표정과 사랑 향기를 지니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탄생시켰다.

준일 군은 동화를 쓰고 그 동화를 책으로 만들었다. 어린 동생들을 위해 삽화도 넣고 동생들뿐 아니라 해외에 입양되는 아이들도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번역도 넣었다. 책이 완성되기까지 수십 번, 아니 그 이상을 읽고 또 읽었다. 윤일·건일도 이제 외출 만큼 읽어주었지만 형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지금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인세 기부를 통한 착한 약속 실현

박준일 군은 동화를 쓰면서 이 이야기는 꼭 '착한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뒤에는 두 동생 윤일·건일이 있었다.

"입양을 기다리는 다른 아기들을 위해 무언가 돕고 싶은데 고등학생으로서 아직 봉사나 어떤 활동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군가 '책을 만들면 인세를 기부할 수 있다'고 한 말이 기억났어요."

준일 군은 착한 약속을 지키고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은 통장을 해약했다.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남을 만큼인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책 제작에 사용했다. 그 결과 지금껏 매달 인세가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되고 있다.

"첫 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았던 건 윤일이 책 표지에 적힌 제 이름을 보고 '형아!'라며 박준일 세 글자를 읽어주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윤일이 형을 올라타고 건일이 형이를 찾으며 울음을 터트리려도 준일 군은 온화한 미소만 지었다. 수능 준비로 바쁜 지금, 어린 두 동생이 귀찮기도 하련만 준일 군은 그 순간까지도 아주 행복하단다.

"13년 동안 외아들로 자랐어요. 집에 와도 반겨주는 이도 없고 외로웠죠. 그러다 2009년, 2011년 두 동생이 생기면서 매일매일 하고 후 집에 서둘러 오는 이유가 생겼고,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제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는 동생을 보고 모범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책임감과 긍정적인 사고도 갖게 됐어요. 동생들은 제게 단순한 '동생'이 아닌 '삶의 이유'가 됐고, 함께 걸어갈 '동행자'가 됐어요."

박준일 군은 윤일·건일과 형제가 된 후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바로 '사회복지사!' 엄마 오수진 씨의 회유(?)에도 변하지 않는 꿈이란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고, 자신처럼 입양가족을 연결해주고 입양이들을 위해 일하고 싶단다. 준일 군이 사회복지사로 서는 그 날이 왠지 머지 않은 것 같다. 곧 같은 자리에서 만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드는 이유를 두 동생을 안은 준일 군의 미소에서 읽을 수 있었다. 다름 아닌 '사랑'. **사랑**

글 _ 김은희 · 홍보팀



창우는 이제, '33개월 아이'이고 싶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공호흡기에 1년 반을 의지했던 창우. 그동안 어려운 수술을 여러 차례 이겨냈지만 창우에게는 또 재수술이 기다리고 있다. 33개월, 아장아장 뛰어 다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곳저곳 둘러보기 바쁠 또래와 달리, 창우는 팔과 다리도 가누지 못한 채 병원 침대에서만 지내야 한다. 그 상황이 못내 안타깝기만 하다.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산소뿐인 아이

창우(33개월, 가명)는 2011년 39주 2.9kg로 태어났다. 출생 당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뇌위축, 후두연화, 위 식도 역류, 요로감염 등으로 입원해 지금껏 치료받고 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할 만큼 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수유 시 우유가 폐로 흡입되는 위험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흡인성 폐렴이 우려되었고,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기관절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호흡곤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음식물 먹기가 어려워 결국 왼쪽 옆구리에서 위장과 연결하는 위루형성술(Gastrostomy)을 받아야만 했다. 창우는 1년 반 동안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냈다. 가래 때문에 수시로 석션을 해줘야만 하고, 언제 호흡곤란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은 창우를 가장 가까이 두고 24시간 지켜봐주고 있다.

또 창우는 중복신장(Double kidney)으로 방광에 있었던 소변이 다시 콩팥으로 역류하는 방광요관역류(Vesicoureteral reflux) 장애도 갖고 있다. 그래서 방광 안 염증을 예방하고자 소변이 내려오는 길 부분에 작은 구멍을 내는 방광루형성술 수술을 작년 봄에 받기도 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마다

소변이 흘러나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소독은 필수. 간호사 선생님은 방광 수술 부위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고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하셨다. 창우는 마음도, 손길도 많이 필요한 아이다.

장난감 대신 산소호흡기를 곁에 두고 있는 아이

창우는 간호사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반가운 듯 미소를 지어준다. 가까이 무언가 보이면 잡고 싶은지 손을 뻗어보지만 힘이 없어 팔이 아래로 떨어진다. 창우는 누워 있기가 답답한지 손과 발을 움직여보지만 배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 때문에 그 작은 움직임도 자유롭지가 않다. 가래 때문에 침도 삼키지 못하다 보니 입 밖으로 침이 거품처럼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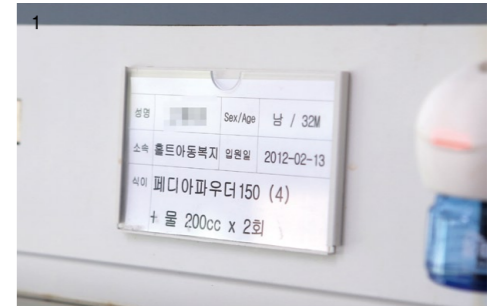
장난감, 책이 아닌 의료 장치들과 소독 식염수가 침대 곁에 놓여 있다. 간호사 선생님은 긴 병원생활과 힘든 수술을 잘 견뎌준 창우가 대견하다며 칭찬과 응원을 아낌없이 전해주셨다. 창우에게 의료진은 가족과 다름없다. 부모 품은 바라지 못해도 위탁가정이라도 있었다면... 창밖을 바라보는 창우의 눈빛이 애처로워 보인다.

창우는 병원 밖으로 나가기도 쉽지 않다. 다른 병원에 검진차 이동할 때도 앰블런스에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힘든 상태라 하니 외출은 더 어려울듯 보였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입으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 맛을 모르는 아이, 창우. 활동이 없다 보니 장운동도 활발하지 못해 관장이 필요할 때가 많다. 현재 창우는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봄에 수술받았던 방광루형성술 수술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재수술받을 예정이다.

창우와 함께 지내면서 건강을 체크해주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홀트아동복지회 선생님들 모두 수술이 잘 끝날 수 있게 응원하고 있다. 수술을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 건강해지겠지, 하는 바람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창우야, 힘내! 우리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고 함께할 거야. 지금보다 더 편한 밝은 미소 기대할게. 곧 그 날이 오리라 믿는다!” **Heart**

글 _ 박혜연 · 홍보팀



1 창우의 침대에는 보호자 명 대신 소속이 적혀 있다. 2 가래 때문에 침을 삼키지 못해 침이 거품처럼 흘러나온다. 3 왼쪽 옆구리 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정민이는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잠깐 동안 붙잡고 서 있을 수 있게 됐으며, 두세 발자국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을 때 오른발이 바깥으로 벌어진 상태여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왼쪽 눈의 사시 때문에 재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또래보다 작은 정민이는 여러분의 관심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캄보디아 국토 1/3이 비닐로 덮여 있다고 말할 만큼 도시 중심을 제외하고는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아 캄보디아의 열악한 위생문제는 2010년 유엔 발표에서도 대두했습니다. 집 아래가 화장실이요 쓰레기장인 열악한 위생시설은 설사 및 다른 질병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아이들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는 마을 주민과 아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Clean & Clear Campaign)'. 생소하지만 즐거웠던 첫 경험이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 조금씩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환경

UNICEF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인 2015년까지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국민은 설사 및 비위생으로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연간 1만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2008년 세계은행의 물과 위생 프로그램의 조사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홀트드림센터가 자리한 트라피앙 안찬 마을 역시 위생환경이 낙후된 곳입니다. 인구 4,500여 명, 도시빈민들로 형성된 지역으로 모든 시설이 '임시'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수도과 배관시설도 열악하다 보니 모든 가정의 생활오물이 그대로 땅속에 흡수되는 듯 보였고, 화장실이 있는 가구도 반 이하였으며, 있다 한들 그 기능은 잠자는 집과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밖에 대소변을 보는 경우 콜레라와 같은 위험한 질병이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열악한 위생시설과 음용수 상태는 설사 및 다른 질병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또한 위생환경 낙후에는 쓰레기 문제도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은 길거리에 무언가를 습관처럼 툭툭 버리고, 정부 차원의 쓰레기 수거도 거의 이루어지



건강한 삶을 쫓 피우는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

지 않다 보니 마을 입구에 즐비했던 쓰레기 더미들이 이제는 마을까지 뒤덮게 되었습니다. 곳곳의 빈 집터에는 쓰레기와 악취가 뒤섞인 썩은 물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도로는 진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고인 검은 물을 내뿜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해맑게 그 도로에서 맨발, 맨몸으로 놀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위생환경이 아이들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었지만 마을 주민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캠페인에 동화된 주민들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의 필요성을 마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캠페인을 펼치고자 2013년 1월 우선 마을 이장(트라

피앙 안찬 마을은 6개의 커뮤니티로 이루어져 있으며, 6명의 커뮤니티 리더(이장)가 있습니다)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장들에게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방역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 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해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죠.

드디어 첫 캠페인 날! 홀트드림센터 아동 외 지역 아동 200여 명과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피켓을 만들고 위생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한 뒤 쓰레기봉투를 들고 각 조에 배정된 마을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각 조의 피켓을 들고 마을을 돌며 청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쓰레

기를 수거했으며, 종료 후 센터에 모여 각자 느낀 점을 공유하면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에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응원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 이장이 선별해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방역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역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들과 이장들은 너무 보람되고 좋았으며 연 2회 계획했던 방역을 두 달에 한 번으로 조정하길 요청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된 태도에서 희망을 보다

지금까지 8회의 활동을 펼쳤지만 마을 환경이 눈에 띄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힘으로는 4,500여 명이 사는 마을 전체가 한 번에 변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 하나 계속해서 서로 협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간식을 주던 날 아이들이 또 어김없이 툭툭 포장지를 센터 주변에 버릴 때, 몇몇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그렇게 버리면 안 된다, 저기 쓰레기통에 버려라'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남아 청소를 하는 것 아닌가요? 몇몇 아이들일지라도 '이게 변화의 시작인가' 싶어 웃을 짓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방역 청소 모습. 2 마을을 청소하는 홀트드림센터 아이들.



2014년부터 좀 더 적극적인 '클린 앤 클리어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려 해도 어른들의 행동과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확산이 어려운 만큼 부모님과 이장들을 대상으로 마을 환경정화의 필요성과 아동의 위생건강과 관련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곳곳에 마을 환경정화와 관련된 게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 입구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홀트드림센터에서 유료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월 2~4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강제로 이주돼 삶에 대한 상실감이 큰 주민들인 만큼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지금의 활동이 자신과 아이, 즉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이주민 집단거주지가 아닌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어나가는 길임을 깨닫기를...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Holt

글 _ 이태경 센터장 · 홀트드림센터



한 곡을 소화하려면 6개월간 공들여 연습해야 하는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원은 이번 공연을 위해 사법고시보다 어렵다(?)는 캄보디아 언어로 노래(아랍비아)를 연습하고 공연일에 올랐습니다. 설레는 첫 공연, 프놈펜 한인교회와 국립장애고아원을 찾아 음악을 선사하고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도로가 끊겨 홀트드림센터와 국립기술대학교에서의 공연은 펼쳐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25일 캄보디아 왕립프놈펜대학교 한-캄

협력센터(CKCC)에서 열린 공연은 교민과 지역사회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큰 자리였던 만큼 단원들도 더 열심히 불렀습니다. 객석은 뜨거운 박수갈채와 앙코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부정확한 발음으로 합창하는 단원들의 모습에 캄보디아 학생들이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렸고, 캄보디아 민속 노래 '아랍이아'와 앙코르 곡 '아리랑'이 불리는 순간 캄보디아 주재 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 이 기쁨이 '영혼의 소리'가 지속되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원들은 캄보디아 도착 첫날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단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연 중 화장실에 갔다 와서 다시 부르기도 하고, 이동 때마다 링거를 맞을 만큼 쇠약한 가운데였지만 그래도 공연만은 성실하게 임한 '영혼의 소리' 단원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열정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집이 너무 좋아!" 두 손 들어 외치는 단원들. 하지만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캄보디아에 두고 왔습니다.

글 _ 유현성 사회복지사 · 홀트일산복지타운

캄보디아를 울린 '영혼의 소리'

홀트이동복지회의 자랑,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가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해외공연을 펼쳤습니다. 아직 장애인복지 개념도 낮은 캄보디아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 메시지를 전한 자리였습니다.



쌍둥이를 위해 그리는 '만능 엄마' '슈퍼우먼'의 꿈

분리장애, 언어발달장애로 보이는 쌍둥이 남매 엄마 지영 씨는 정신장애와 싸우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건강한 엄마를 쌍둥이에게 보여주고자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만능 엄마, 슈퍼우먼의 꿈' 쌍둥이 앞에서 굳게 다짐해봅니다.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엄마! 아파뎀마도 아빠가 있고 짱구도 있는데 나는 왜 아빠가 없어??”

4살 해은이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가장 난감하다는 엄마 지영(30, 가명) 씨는 해은이(4, 가명)와 해준이(4, 가명) 남매를 혼자 기르고 있는 미혼 모입니다. 남자친구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우자 약속했지만 결과는 ‘연락두절’로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뱃속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 미혼모시설에 입소해 34주 차에 1.9kg, 2.0kg 미숙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생활을 해야만 했던 아이들은 크면서 잔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첫째 해은이는 분리장애의 가능성이 보이고 해준이는 언어발달장애의 가능성이 있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어린 나이라 장애 확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마에겐 큰 미안함으로 다가옵니다. 혼자서 몸으로 쌍둥이를 돌봐야 했기에 제대로 관심이 못 미쳤던 것은 아닐까, 자책을 벗을 수 없습니다.

근검절약으로 달은 열 걸음짜리 행복의 집

부모님이 출산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출산의 여파 때문인지 지병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느라 아이들은 일시보호소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로 모은 40만 원을 손에 쥐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나마도 이것저것 경비를 제외하니 20만 원이 지영 씨와 아이들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집에서 신세를 지다 바퀴벌레가 득실대거나 외풍이 너무 심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정도인 무보증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원룸에 오게 됐죠.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빠듯한 지원금이었지만 아끼고 아껴 저축한 결과입니다. 열 걸음이면 죽한 방, 그래도 세 식구에게는 최고의 집이라며 행복해합니다.

지영 씨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는 일은 수도와 전기계량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수도세와 전기세를 공동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나라도 아끼면 조금 덜 나올까’ 모든 전력 코드는 다 뽑아놓습니다. 혼자서 아낀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항상 노심초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한 달에 기저귀만 360개 이상 사용하다 보니 소변만 누인 기저귀는 햇빛에 말려 사용할 만큼 아끼는 것이 습관화된 듯 보였습니다.

몇 달 전에는 큰마음 먹고 아이들의 장난감과 해진 운동화를 바꾸어주었다고 합니다. 금세 커버리는 아이들을 위해 때맞춰 무언가 사줄 수 없을 때가 가장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많은 도움으로 이만큼까지 살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지영 씨. 취재에 응한 것도 자신보다



1 엄마 사랑해요. 2 엄마를 일으키는 보물.



3 매일 복용해야 하는 지영 씨의 약.

더 어려운 미혼모자가정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유였다고, 그들을 향한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장애 2급 지영 씨, 멋진 엄마이고 싶어요


지영 씨는 고3 때, 동년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환시나 환영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교 활동도 열심히 하며 외부에서 상도 받아올 만큼 모범생이던 지영 씨는, 이 순간을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매일 약을 복용해야만 합니다. 잠시 호전되어 약을 끊어보려고도 했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다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가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현재 2급으로 내려갔지만 그 벽은 너무나 컸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모자원에 입소하려 했지만 공동생활이기에 '장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또 자립하기 위해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지만 시험 응시만 가능할 뿐 자격증 발급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장애 급수가 높을수록 정부지원금이 많아집니다. 수입이 없는 지영 씨로서는 이 돈 저 돈 가릴 형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는 당장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보다 스스로 멋있게 자립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장애 급수'를 낮추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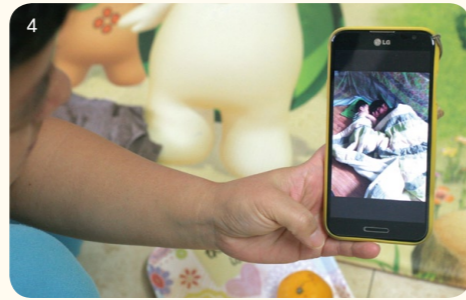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노력 없는 열매를 맺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정식 직장도 구하고, 저축도 해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선생님, 지켜봐주세요~"

잘못 끼워진 단추는 새 단추로 여머지고 있는 중

지영 씨의 집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습니다. 수건도 옷도 다 색상별로 고이 접혀 있고, 책들도 1, 2, 3... 순서대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몸으로 길러내는 것도 버거울 텐데 똑 부러지게 살림하는 것이 부럽다고 했더니 "선생님~ 강박증 증상 중 하나예요. 그리고 웬지 정리하면 잘못된 듯한 게 싫고 원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잘못 끼워진 단추'라고 표현되는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지영 씨. 그러나 그녀는 지나간 신세를 탓하기보다 앞으로의 미래를 더 잘 그리고 싶은 현명한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일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는 만능 엄마, 슈퍼우먼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단추가 만들어져 더 튼튼하게 여머지고 있는 중일 거라고, 더 단단해진 만능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엄마보다도 '꼭' '꼭'하고 Good!Good!한 엄마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글 _ 김유진 · 후원팀



4 반대했던 할아버지가 손주와 자는 모습을 담은 사진.
5 색상별로 정리되어 있는 수건.

'꼭꼭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75
www.holt.or.kr

'꼭꼭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꼭하고 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지영 씨에게는 양육비 월 20만 원 씩이 1년간 지원됩니다.



함께하는 이웃, 다문화가족

'다문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용어로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2.8%나 차지할 만큼 다문화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는 이웃이 되었다. 한국 사회의 조기적응과 원활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작되었고, 홀트아동복지회도 서울·대구·춘천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작된 지 5년. 내 가족, 내 이웃, 내 아이의 친구인 다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의 다문화 시작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법무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으로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별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21개소 지정·운영하기 시작해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3년 현재 전국 215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사업을 통합해 전국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2009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했으며, 2011년 다문화가족 범위를 확대해 '귀화·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포함시켰다. 센터의 사업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00명 중 3명은 다문화 이웃

2013년도 외국인 주민 현황(1월 1일 기준)을 보면 144만 5,631명으로 한국 주민등록 인구대비 2.8%로 나타나며, 결혼이민자 수는 23만 1,520명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해 2005년 전체 결혼 건수 대비 13.5%로 정점을 이루다가, 2011년 9%로 국제결혼 비율은 완만한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7만 명 내외(결혼이민자 21만 명, 자녀 15만 명, 한국인 배우자 21만 명)던 것이 2020년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결혼이민자 약 35만 명, 자녀 30만 명, 한국인 배우자 35만 명)된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 상승으로 결혼이민자 최다수 집단이 2009년 20~30대가 71.2%, 2010년도에는 40대 이상이 60% 내외가 됨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는 2020년 이후 중·고령기에 접어들어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할 시기가 되고, 부부의 나이 차이가 큰 데 따라 사별 가능성이 높아져 특히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교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학년기 자녀가 대폭 늘어나 학습 부진, 학교생활 부적응, 정체성의 혼란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예상되며,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이전에 결혼해서 낳은 본국 거주 자녀(중도 입국자녀)가 입국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다양화라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외국인 정책에 이어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2013년부터 5년간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을 수립해 수행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 다문화 복지 서비스

홀트아동복지회는 결혼이민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새롭게 제시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욕구를 수용하고 제반적인 문제점 해소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동들이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다문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홀트아동복지회는 2006년 12월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마포구·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개 센터 이용 인원은 약 6만 5,000명이며, 춘천시센터의 경우 전국



1 자조모임 2 김장 담그기 3 다문화축제



200개 센터에서 세 번째로 이용 인원이 많은 만큼 다문화 복지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안정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춘천시에 자체 건물을 구입했고, 2013년 법인에서는 다문화지원사업으로 3개 센터에 2억 2,000만 원의 예산지원과 79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총 8만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으며,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사례 연구와 연합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도 2012년 다양한 프로그램에 2만 2,010명이 센터를 이용했으며, 센터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 외에 지역 다문화가정의 실태조사를 실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각 센터별 민관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한국에 잘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는 경

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수용성 제고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본다. 앞서 다문화 사업 환경과 주요 지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안전한 가족생활을 구축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확대하며,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등 체계 정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에서 벗어나 함께 포용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Holt](#)

글 _ 신두진 센터장 ·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참고 문헌

2011년 혼인·이혼 통계보도자료(통계청) / 다문화가족의 성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설동훈 외, 2009) / 여성가족부 외국인주민현황 조사(행정안전부, 2011)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여성가족부) / 2013 외국인주민 현황 안전행정부 / 2012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결과 보고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모국어가 두 가지인 아이들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언어영재교실 문의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142-5026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251-8014
 다누리 콜센터 1577-5432

우렁찬 아이들 목소리가 문밖으로 들려왔다. 언어영재교실 중국어반이 한창 수업 중인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들은 학기 중 이곳에 나와 엄마의 나라, 친구의 나라 말을 배우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인 희연이는 중국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달라 어렵지만 중국어를 배운 뒤로 엄마 말을 많이 알아들을 수 있어 좋단다. 무엇보다 부모인 어머니들이 이 수업에 대한성이다. 왕준영 선생님은 다문화 어머니들이 "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점을 가장 흡족해한다"며 방학도 없이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랄 정도란다. 이처럼 언어영재교실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대상의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를 성장 지원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반, 초등학교 반을 포함해 통합반, 특별반(결혼이민자 배우자, 시부모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86%(14만 4,929명, 2012년)가 영유아 및 초등학교생인 만큼 언어 흡수력과 효과 면에서도 언어영재교실은 훗날 두 개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 성장의 바탕이 되리라 본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춘천시센터와 마포구센터에서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5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언어영재교실은 특히 비다문화 학생도 전체 40%까지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다문화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라는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아버님이 만주에서 개척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하셨죠. 해방 후 만주에서 서울로 피난나와 흩어졌던 가족과 기적처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잠시, 6.25 사변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주에서 아셨던 분의 소개로 미군중군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며 영어를 배우게 되었죠. 아마 그 '영어 배운 것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정치가 꿈을 가졌던 제가 인생의 2/3를 아이들 돕는 일을 했으니, 결국은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가라는 곳에서 일하는 게 길인 것 같습니다.

6개월만 일하기로 한 것이 60여 년이 되어갑니다

홀트 할아버지가(해리 홀트 씨를 아이들은 '할아버지'라 불러 애칭이 되었음) 1955년 한국고아 8명을 입양하고 그 이듬해인 2월 한국에 다시 나오셨죠. 전쟁고아와 혼혈고아들이 눈에 밟혀 다시 그들을 위해 잠시 나오셨고, 영어를 하는 한국인이 필요했었던 차에 제가 한국선명회(현 월드비전)의 아는 분 추천으로 해리 홀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민구호법'에 의해 아이들이 미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법의 만료가 그해 12월 31일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남은 기간인 6개월 동안이라도 한국 내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고자 연고도 없는 이 땅에 다시 온 거죠. 그리고 저도 6개월 고용관계로 알고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956년 12월 31일이 되었는데 혼혈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고아원으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위해 미국 국회에 기간 연장을 호소해 처음에는 한 달, 석 달, 1년이 연장됐고, 그러던 중 1960년, 이민법이 재조정됐죠. 그때 한국에도 고아입양특별법(1961)이 생겼어요.

25세 총각이 아이 기저귀 갈기는 선수가 되었어요. 제가 아이들 이름 참 많이 지어줬습니다. 이름 없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성은 무조건 '김해 김씨'를 붙였죠.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와 약혼 당시 내가 3,000명의 아버지라고 인사했지요. 그만큼 그 아이들의 법정후견인으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 된 거죠.



1 1960년 즈음 해리 홀트 씨와 김형복 명예총재.
2 해리 홀트 씨와 함께 일하던 시절.

고아원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틴에이지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시설은 매일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효창동시설은 100여 명, 녹번동시설은 200여 명을 보호했죠. 하루에 우유병을 2,000개씩, 기저귀를 1,000여 개씩 빨아야 했어요. 할아버지가 당시 요즘 말하는 건조기를 만들기도 했으니깐요.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분이셔서 다수 시설도 직접 지으셨죠.

할아버지는 늘 입양을 가지 못하고 남은 아이들을 마음에 걸려 했어요. 건강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쉬면서도 늘 그 고민으로 가득했고요. 고아들의 정착사업을 위해 홀트 씨와 내가 땅, 농경지를 찾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부터 목포 영산강까지 갯벌이란 갯벌은 다 조사한 적도 있어요. 농사로 시작해 사업가로 성공한 자신을 모델 삼아 아이들에게 만 평씩 땅을 주어 독립하게 도와준다는 꿈이 있으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틴에이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기도 했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홀트아동복지회 첫 직원이자 홀트국제아동복지회(미국) 총재를 역임한 김형복 명예총재.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베트남·루마니아·인도·태국·필리핀·중국·몽골·케냐 등 5만 명이 넘는 아동들의 복리를 위해 일한 김형복 명예총재(81)를 통해 홀트의 시작과 정신 그리고 바람을 들어보았습니다.





3



4

3 녹번리 고아원에는 고아뿐 아니라 장애아들도 모여들었다.

4 1978년 홀트소년단 청소년들.

현재 홀트일산복지타운도 설립 시 땅만 사지 않고 농경지를 함께 구입한 것은 큰 아이들의 생계, 자립에 대한 고민에서였어요. 참, 땅 구하겠다고 파라과이까지 갔었죠. 혼혈이들이 한국 땅에서 따돌림받고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새 삶을 살아보면 어떻겠냐는 의지였던 것 같아요.

홀트 씨 전 재산 '백만 불'을 내 손으로 썼습니다

홀트 씨는 제재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임에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무조건 절약했어요. 한국에서 땅을 보러 다닐 때도 나는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어야 했지만 할아버지는 건빵하고 사이다. 삶은 계란을 먹었죠. 그런데 아이들한테만은 아끼지 않았어요. 하루는 녹번동시설에 엑스레이가 필요해서 포트레이공항에서 잠시 들렀을 때 엑스레이 파는 회사에 갔었죠. 당시 7,000불(약 740만 원)인 의료기기를 망설임 없이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1956년 첫 전세비행기 대절 비용이 35,000불(약 3,700만 원)이었는데 그 돈도 할아버지 돈이었어요. 주식이고 땅이고 다 팔았어요. 한국에 갔다 쓴 돈은 사실상 내 손에 의해 나간 거니 내가 그 사람 돈을 다 쓴 셈이지요. 하루는 수표를 쓰고 있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This is a Lord money." 이건 하나님의 돈이라고, 아마 아껴 쓰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어라 말할 것인가?' 지금도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낭포성 폐렴이 돌아매일 사망 아동이 속출했어요. 한 겨울 공동묘지의 언 땅을 파는데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어라 말할 것인가?(Who will answer before God for these children?)"

하도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니 무감각한 일로 여겼는데 할아버지는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저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때 홀트 할아버지 음성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이들을 묻는 자리도 못 찾아 애걸구걸해서 공동묘지를 받을 만큼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목숨에 대해 무감각하던 시절, 할아버지는 오히려 한 아이의 죽음도 외면하지 않고 손수 묻고 묘비를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그 땅도 얼마 안 돼서 다 찾지만요. 할아버지의 질문을 되뇌며 60년 동안 아동복지 현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 '우리는 그저 할 뿐이다. 그 결과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일하자'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입양의 첫 수혜자입니다

저는 1956년 홀트 씨를 만나기 전 입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 일을 하면서 입양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동생들 중에서 입양한 아이가 셋이나 있고, 그 자녀들이 또 입양을 했습니다. 내 이들도 미국 입양기관에서 일하고, 며느리도 입양인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지요. 제가 바람이 있어도 결혼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입양의 첫 수혜자가 아닌가. 입양은 나에게 '사랑이고 실천'입니다.

한국 내 다문화 사회를 통합하는 일이 홀트아동복지회의 새로운 역할이라 봅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기관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입니다. 해리 홀트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활동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비에 의해 가정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중심은 '아이의 행복'입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성경의 이사가가 생각납니다. 이사가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선지자를 보내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누굴 보낼 것이냐' 하는 고민에 이사가가 '내가 가겠습니다' 답하지요. 할아버지도 백만장자 부자로 편안한 생활을 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굶주림과 고난을 극복해가면서 한국에서 그 생활을 한 것인가. 그건 아이들을 향한 그분의 진심, 하나님의 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고아를 위한 마음으로 가정을 찾아준 겁니다.

저는 홀트아동복지회가 할아버지가 못하고 간 일, 장애아, 연장고아, 미혼모들을 위해 일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옛날 57년 전에 우리는 혼혈아를 외국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반 세기가 지나니 사회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이러니하면서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는 만큼 이제 홀트아동복지회는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자리 잡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따돌림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지금의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What we do that'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사회복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다 보니 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론 우리 마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최근 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오는 입양인들의 경우도 일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친구들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 과거사를 잘 모르니 여러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What we do that(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홀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무엇을, 왜 했냐'를 늘 고민하며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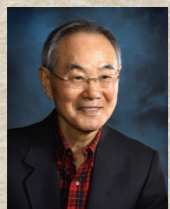
5



6

5 김형복 명예총재와 시설 아동.
6 2013년 8월 한국을 찾은 김형복 명예총재와 가족, 손주들과 며느리(오른쪽), 손주들과 함께

● 김형복 명예총재 이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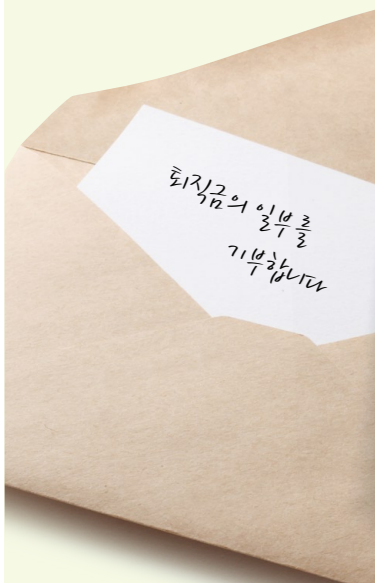
1956년부터 1963년까지 홀트아동복지회 한국 책임자로 역임 후 유학길에 올라 사회복지를 전공했으며, 1966년부터 현재까지 홀트국제아동복지회(미국)에서 활동.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로도 봉사했으며, 미국 오리건 주 난민아동구조협의회 이사장과 세계입양기관 협의회 이사장으로 1990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헤이그협약에 참석하는 등 국제아동 인권과 관심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국내에서도 1985년 국민포장을 수여받는 등 많은 명예로운 업적을 남기셨으며, 저서로는 2010년 한국어 번역 출판물 'Who will Answer'가 있다.

퇴직금이 새로운 시작의 싹이 되길 바라요

— 윤은영 후원자님의 별의별 후원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속담이 기부 속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축하할 일도, 행복했던 순간도, 낙심되고 슬펐던 순간도, 그리고 새 각오를 다지는 순간에도 기부를 떠올리며 나누는 이들, '특별한 기부자'입니다. 윤은영 후원자님도 9년의 직장생활을 마치며 마지막 월급인 '퇴직금'의 일부를 기부해주셨습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9년 동안 몸담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을 사회하게 되자 아주 오랜 애인과 헤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용기백배, 자식님들 기뻐했던 시절이 지나면서는 점점 많아지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벗어나고 싶었던 곳. 그러나 돌아보면 그동안 삶과 추억의 함을 쌓았다는
 생각에 그곳에서 전 행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은영아, 그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더욱
 힘내자'고요. 일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해피' 하는 것 중 하나가 '후원' 이잖
 아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여유' 라는 게 가지고
 없다고 해서 억지로 가져가거나, 쉽게 생기는 건 아닌 듯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눔을 미루지 말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들자!'고 결심하게 됐죠.
 요즘은 재능기부도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월급의 3~5% 정도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생각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 어느덧 100만 원대를 넘어섰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의
 일부도 가장 먼저 떼어 나눔 실천에 사용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정기후원으로 제 마음의 여유가 더 커진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죠.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터기에 정기후원을 하고 있던 터라 기부기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어딘가에든 분명 나 한 명의 나눔조차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딘가 좋을까 고민을 거듭하던 중,
 마치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홀트아동복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품에서 지낼 수 없어 가족을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혼모, 고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들, 사회에서 약자인 사람들과 그리고 보호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만아니들...
 그들에게 홀트아동복지회는 늘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홀트 가족으로서 그 힘이 유지되도록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겨울이 또 왔네요. 추울수록 힘드신 분이 많을 텐데...
 겨울이 오면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함께하면 그 무게가
 덜어질 것이라고 믿기에 나눔에 동참하는 분이 더욱 많았기를 소망합니다. HHT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행보,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든든한 후원기업으로서 따뜻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이 공사의 존재 이유라 말씀하시는 김시화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남시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창립된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공기업으로서 주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괄목할 만한 일은 바로 사회공헌 활동. 현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김시화 사장님은 무엇보다 지역사회 공동 행복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때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환원금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공사의 존재 이유는 하남시의 발전과 하남시민의 복리 증진”이라 답변한다는 김시화 사장님.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저소득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과 사랑의 감장 나누기 행사, 저소득 가정 명절선물 지원, 동절기 난방용품 및 영양식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월동물품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기초지역 공기업 최초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시행, 입주민에게 도배·장판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보증보험료, 주택화재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주거 안정과 입주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사회봉사단도 운영해 매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죠.

지역 복지를 펼칠 때 가장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후원입니다. 지금껏 하남시도시개발공사는 1억 3,000여만 원을 후원했을 뿐 아니라 많은 봉사자가 참여해 복지관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후원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시화 사장님은 “지금처럼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참여와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처음에는 일부 불평이 있었지만 이제는 봉사의 맛을 깨달은 직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청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도움을 제공하는 손길이 아닌 감사함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 생각하신다고,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든든한 후원자로 만난 하남시도시개발공사. 두 기관명의 시작이 '하남시'인 만큼 하남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동행하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는 데 기대가 더욱 높아집니다. HHT

낙엽이 무르익은 늦가을, 후원자님들과 함께하는 행사장은 온정과 훈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11월 6일 열린 2013 홀트아동복지회 후원자대축제 '사랑하기 좋은 날'을 소개합니다.

행복과 나눔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랑하기 좋은 날



1 고아들의 주치의, 조병국 원장님.
2 33년 후원자 이자형 님.

갑작스런 비 소식에 후원자님들이 행사장까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을까 싶은 염려도 잠시, 행사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친구, 연인,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전국후원회 김경희 회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샌드위치, 베이비뮤즈의 예쁜 포토 존, 점프봉사단의 사진인화, 봄 TV커뮤니케이션의 영상 후원과 이미코스메틱 화장품의 후원으로 기쁨이 더해졌죠.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맡은 홍보대사 윤택 님, 자리를 빛내주신 송재호 님, 김성은 님, 유리 님 그리고 노래를 들려주신 백지영 님과 알렉스 님까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2013 홀트후원자대축제는 나눔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 '사랑하기 좋은 날'로 빛났습니다.

감동과 감사의 시간으로 피어난 나눔이란 꽃

입양한 두 동생을 위해 '민들레가 들려주는 가족이야기'라는 동화책을 만들고 인세 전액을 홀트아동복지회에 기부하고 있는 고등학생 박준일 군의 나눔 이야기를 시작으로, 51명의 후원자와 함께 나눔을 동행 삼아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해 후원금을 기부한 정새론 후원자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이신 아버지 해리 홀트 씨의 뜻을 이어 21세에 간호사로 무작정 한국 땅을 밟아 봉사활동을 펼친 인연이 어느덧 반 세기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말리 홀트 이사장님, 1970년부터 수만 명 고아들의 주치의로 헌신해 오신데다 지금까지도 홀트일산복지타운에서 장애인들의 주치의로 봉사해주시는 조병국 원장님의 토크 무대. 그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픈 아이들을 위해 봉사정신을 실천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님은 골수암 진단을 받은 탓에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후원자들에게 전하는 안부와 아픈 몸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을 전달해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홀트와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약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후원하며 홀트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사 굿스틸파트너스, 1980년부터 현



윤택 홍보대사와 후원자 박준일 군.



3 굿스틸파트너스 유윤상 부장님.
4 행운권에 당첨된 후원자분과 함께, 5 '영혼의 소리'로 홀트장애인 합창단 공연.

재까지 33년 동안 지속적인 정기후원으로 홀트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던 이자형 후원자님께 감사패를 전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진 하모니

홀트아동복지회의 자랑, 장애인합창단의 '영혼의 소리'의 심금 울리는 합창이 울려 퍼진 후, 공연장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고 이는 합창단원이 퇴장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가을날의 분위기에 맞게 아름다운 음색을 들려주셨던 성악가이자 명지대학교 교수인 허숙진 님의 오페라 무대와 홀트아동복지회 직원들이 후원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합창은 감동의 물결로 하나 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후원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글 _ 박혜연 · 홍보팀



재능공연을 펼쳐주신 백지영 · 알렉스 홍보대사.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중국집

자장면 한 그릇에 감동받던 시절. 졸업식 등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늘 자장면과 탕수육이 함께였고, 입가에 양념이 묻는지도 모른 채 허겁지겁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맛과 추억이 묻어나는 이 자장면이 '사랑의 자장면'으로 변신해 홀트수영복지관을 행복으로 비벼주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다. 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광역시지회 수영구지부장 조재관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고 헐벗어 못 먹던 시절이 있었죠. 자장면을 먹는다는 건 당연히 꿈같은 일이었고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수영구지부는 밀레니엄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던 2000년에 시작되었다. 수영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이면서 '이왕이면 뭔가 의미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이웃을 향한 첫 데이트 장소로 찾은 게 아동생활 시설이었다. 젓가락질도 서툴고 입에 자장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으며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의 참맛을 알게 된 그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눔은 계속되었다.

휴일도 반납하게 만드는 감동의 말 “맛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 당연한 말이지만 '맛있다'는 말일 것이다. 자장면 나눔활동을 하면서 들은 이 말은 그들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만들었다고 한다. 치켜든 엄지손가락, 그리고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자장면을 만드는 이들의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홀트수영복지관에서 열린 '사랑의 자장면데이'.

많은 수영구지회 봉사자들은 이른 시간부터 모여 준비를 시작했지만 어느 누구도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다. 힘들다고 남에게 일을 미루는 사람도 없었다. 고된 일로 휴일이면 으레 집에서 쉬어도 모자랄 텐데 직접 만든 자장면과 탕수육을 가지고 와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이날 홀트수영복지관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중국집을 볼 수 있었다. 더 아름다웠던 것은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부부로 참

석해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봉사를 하는 모습.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풍경이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200명이 맛본 행복

“자장면을 언제 먹어보고 안 먹어봤더라?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먹어보니 기분이 좋네요!”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복지관에 방문한 어르신이 밝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시간이 흘러 자장면은 서민의 대표 음식이 됐지만 아직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었던 것이다.

“자장면을 사 먹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안타까움이 깃든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는 어르신, 봉사자들에게 온몸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며 발길을 옮겼다.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한 다문화 여성들도 “아이들이 자장면을 먹고 기뻐해서 너무 좋아요”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날 함께한 사람들에게 자장면은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왔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똑같이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힘들었던 시절이 가르쳐준 교훈, 나눔

한국중식봉사나눔회 부산광역시지회 수영구지부는 매달 아동 생활시설과 관내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는 매년 1월 1일 광안리 해맞이 행사에서 '복떡국' 나

눔행사를 열어 무려 5,000인분을 만들고 있으며, 이날은 다른 지역의 중식봉사나눔회 회원들도 함께해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곳을 찾아갔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직접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겠습니까. 바로 배달이죠! 이처럼 뜻 깊은 배달은 없을 겁니다.”

중식봉사나눔회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구청의 힘을 빌려 곳곳에 있는 나눔회 회원들이 '찾아가는 자장면' 봉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실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중국집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려운 형편에 중식을 배우게 되었지만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여긴다는 아름다운 사람들.

“나눔은 어느새 우리의 삶이 되었죠”라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어여쁘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외식업체들과 먹거리만 봐도 중식업체는 사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봉사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고 한다. 자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란단다.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http://www.kkcf.org](#)

글 _ 유재진 사회복지사 ·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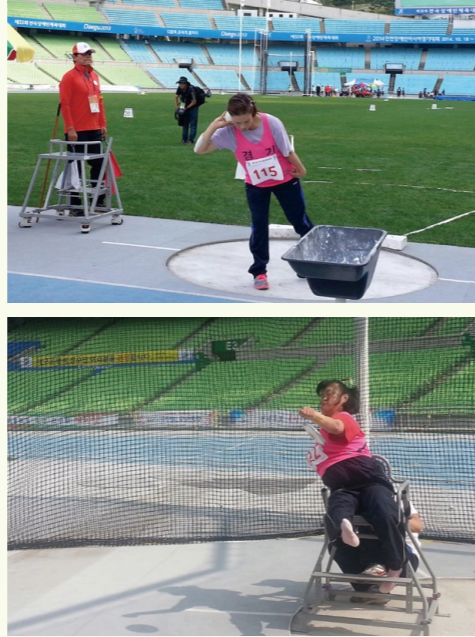


1 사람이 등백 담기 전 발. 2 탕수육을 가지고 와서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들의 모습. 3 행복을 비벼준 봉사자분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리스트들과의 생생 인터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 중 가장 큰 대회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다. 올해로 33회를 맞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뜨겁게 펼쳐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수한 성적을 낸 홀트일산복지타운의 빛나는 얼굴들이 있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메달리스트들과의 생생 인터뷰, 지금 시작한다.



자타가 공인하는 육상 필드의 여왕으로 투창·투원반·투포환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박지혜 씨. 1987년 당시 중학생으로 처녀 출전해 투창과 투포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991년 투원반 종목이 생겨나면서 1992년부터는 거의 3관왕을 독차지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에도 출전해 동아시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 1개, 은 2개의 성적을 올린 아시아의 스타이기도 하다. 그런 그녀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으니, 최근 왼쪽 어깨 탈골로 수술을 받은 일이다. 통증이 지속되어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오른 팔도 테니스엘보로 재활치료 중이라 이번 대회는 유난히 힘들었다고 한다.

특히 경북에서 출전한 라이벌과 동점이 나와 마지막 3차 시도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던져 겨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현재 치료 중이라 잠시 운동을 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조금씩 운동을 재개하려 한다는 지혜 씨.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금메달을 독차지하고 있어 다른 선수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도전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의 도전에 응원과 박수를 보내며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한다.

박지혜 (45세)
육상 필드 - 투창·투원반·투포환 출전



뇌성마비 1급인 인섭 씨는 1987년 오재미를 이용한 종목인 정확하게 던지기, 멀리 던지기 2개 종목에 출전해 2관왕을 차지했다. 이후 두 종목이 없어지던 2011년까지 국내 일인자 자리를 수성하다가 2012년부터 신규 종목인 곤봉 던지기로 전환, 2년째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처음에는 당시 체육관 선생님이셨던 이석산 코치님의 권유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팔도 더 잘 사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메달도 따게 되니 정말 운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단다. 그는 그동안 장애인체전에 참여하면서 드는 생각도 건의해왔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숙소나 화장실의 턱이 높아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 것.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하인섭 (56세)
육상 필드 - 곤봉 던지기 출전



김영옥 (49세)
역도 - 스쿼트·데드리프트·토탈 출전

영옥 씨의 시작은 육상트랙이었다. 역도로 전환한 건 2000년부터. 시작과 동시에 한국 신기록을 갱신했으나 그 대회에서 더 높은 기록을 낸 선수들로 인해 동메달만 3개를 땀다고 한다.

올해도 그녀는 역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 그리고 이두 가지를 종합한 '토탈'에 도전했으며, 데드리프트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기록을 낸 선수와의 체중 차이로 인해 결국 은메달을 목에 걸어야 했다.

운동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힘들어요"라는 말만 반복하는 영옥 씨. 그녀는 젖은 부상으로 인해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은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마지막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고 얻은 그녀의 은메달은 그 누구의 금메달 못지않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글 _ 이창신 사회복지사 · 홀트일산복지타운



● 사회공헌 ●

엔프라니, 사랑나눔 캠페인



(주)엔프라니는 9월 1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 사랑나눔 캠페인을 열어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해도 자사 브랜드 '홀리카 홀리카'에서 모금 캠페인을 개최, 1,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후원을 펼쳐오고 있다.

동화약품, 2013 후시던 사랑의 테디베어 캠페인

(주)동화약품은 11월 12일 미래의 꿈나무들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후시던 사랑의 테디베어 캠페인'을 연계, 우리회사에 테디베어를 130개 전달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043만 원 기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광고회사, 매체사들은 11월 2일 제118회 KOBACO 사장배 축구대회에서 지난 5년간 '1골 1만 원 이웃사랑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1,043만 원을 우리회사에 기부했다.

한화투자증권, 전국 다문화가정 후원



한화투자증권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화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및 본사에 설치된 '사랑나눔 저금통(Love Sharing Box)'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11월 1일 다문화가족 장학금 및 학용품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LIG, 위탁아동 나들이 및 의료비 3천만 원 후원



(주)LIG는 10월 7일 남경수목원에서 펼친 'LIG 사랑의 나들이'에서 서울지역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관계자 4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나들이 및 의료지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 본부 ●

홀트한사랑회 연말 송년회

홀트입양가족으로 구성된 '홀트한사랑회'가 주최한 연말 송년회가 12월 7일 연세대 공학관 대강당에서 전국 70여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제45회 홀트 위탁모 장기근속 명예퇴임 시상식



제45회 홀트 위탁모 장기근속 및 명예퇴임 시상식이 12월 2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됐다. 5년에서 20년간 위탁아동을 정성스레 보살피주신 43명의 장기근속 및 명예퇴임 위탁 봉사자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상패와 부상을 전달했다. 이날 홀트국제아동복지회 후원자와 입양가족이 개최한 크리스마스 파티도 함께 열렸다.

2013 후원자대축제 '사랑하기 좋은 날' 열려

우리회는 11월 6일 2013 후원자대축제 '사랑하기 좋은 날'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는 감사한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재능공연도 펼쳐진 나눔축제였다.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 '2013 Happy Together' 열려



국외장애입양인 및 가족 초청 모국연수 '2013 Happy Together'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돼 미국·덴마크 2개국 22명 국외 입양가족이 참여, 위탁·친가족 상봉 등 모국체험과 값진 경험을 나누었다.

홀트 대바자회

하반기 바자 행사가 10월 25일 개최돼 후원사·봉사자·참여자분들의 지원으로 약 1억 원이 모금되었다.

제4회 캄보디아 공무원 및 시설간부 초청 연수



우리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캄보디아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사회부 및 보건부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홀트드림센터 직원, 마을지도자 등 6명을 초청, 사회복지 연수를 진행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58주년 기념식

창립 58주년을 맞아 10월 7일 기념식을 갖고 우리회 복지사업에 위해 수고해온 장기근속직원



유공(모범)직원에게 상장과 상패가 수여됐다.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

우리회는 10월 5, 6일 양일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에 참가, '홀트 나눔 기상청'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부와 나눔 이벤트를 열었다.

정년퇴임식 열려



김돈영 복지사업 실장(37년), 이명우 국외협력팀장(32년), 송효선 전주영아원 원장(30년), 홀트일산복지타운 신일현 원장(25년)의 정년퇴임식이 9월 30일 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어 소외된 아동과 이웃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네 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지방사무소 ●

경남사무소,

미혼모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협력 캠페인



경남사무소는 10월 31일 경남미혼모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미혼

모 인식개선을 위한 미혼모가족 인식개선 공동협력 캠페인을 실시했다.

대구사무소, 나눔 대축제 '나눔 사랑 빠지다'

대구사무소는 11월 16일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2013 나눔 대축제 '나눔 사랑 빠지다' 나눔 콘서트와 'LOVE IN ACTION' 나눔 행사를 펼쳤다.

부산사무소, 입양가족사진전

부산사무소는 10월 26일 해운대복지박람회에서 입양가족사진전을 전시, 입양을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사무소, 제9회 인천 한마음 가족캠프



10월 18~19일 강화도 성산청소년수련원에서 국내 입양 및 예비양부모 약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인천 한마음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전북사무소, 전북한사랑회 포도·사과 따기 체험



전북한사랑회는 9월 7일 입양가족 예은이네 집에서 포도 따기 체험을, 10월 26일 입양가족 다은이네 모여 사과 따기 체험을 하며, 친목도모와 입양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사무소, 제5회 홀트한사랑회 대전,

충남북 입양가족 연말모임 개최

11월 4일 금산 하늘물빛정원에서 입양가족 100여 명과 자원봉사자, 후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입양가족 연말 모임을 개최했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이은경 생활자 미술대회에서 은상 수상



이은경(18, 지적장애 2급) 양은 9월 6일 꿈티움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2회 '장애인, 꿈을 그리다'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 캄보디아 공연

홀트장애인합창단 '영혼의 소리'는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 공연을 열어 지역사회 및 장애아동과 빈곤층 아동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 홀트학교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공감 FESTIVAL'



홀트학교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13년 인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복·나눔·공감 FESTIVAL'이 10월 26일 열렸다. 1,000여 명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감동 음악회, 명사 및 슈퍼모델 초청 패션쇼, 연예인과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를 나누었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장애 어울림수영대회



고양시장애 어울림수영대회가 11월 16일 열렸다. 총 358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부와 지적장애인 경기, 어울림 경기, 지적장애인 경기, 비장애인 어린이부 경기를 각각 개최했다.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2013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실시

대구복지관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월동준비를 위한 2013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11월 19일(화) 복지관 앞마당에서 실시하고 취약계층 261세대에게 맛있는 김장김치와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김장지원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 실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김장지원금 마련을 위한 대바자회가 11월 7일 복지관과 플라마켓에서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벽화그리기,

벗 끝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벗 끝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벽화그리기를 6회째 진행했다.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주민조직화 사업활동 보고회



지역주민들의 모임인 '광수생각'의 활동보고회가 9월 30일 열려 지난 15개월 동안 주민리더들이 지역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 미혼모자시설 ●

아침粥, 미혼모자 인식개선 사진공모전



인식변화 '미혼모자 인식개선 사진공모전' 시상식이 11월 8일 열렸으며, 총 13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사랑粥, 탈북 미혼양육모 지원을 위한 모금 펼쳐

사랑粥은 탈북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한 미혼모를 지원하고, 응원해주고자 9~10월에 '다음 - 희망해'를 통해 모금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4,658명이 기부, 총 480만 7,543원이 모금되었다.

대전클로버, 홀커밍데이 열려

대전클로버는 11월 22일 6주년을 맞아 퇴소한 미혼 양육모를 초청, 입소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의지 고취와 육아정보 교류 등을 나누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세 살 마을 부모교육

서울시, 삼성생명, 가천대학교와 협력해 진행하는 '세 살 마을 부모교육'이 10월 매주 토요일 오전 본부 강당에서 열렸다.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희망수성복지한마당에서 홍보행사 펼쳐

센터는 10월 19일 열린 '2013년 희망수성복지한마당'과 10월 20일 열린 '평생학습주간 기념행사'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가정센터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갱년기 부부 프로그램 실시



부부의 갱년기 극복을 돕기 위한 '두근두근 우리들의 황금기' 프로그램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주간 자조모임으로 진행, 갱년기 심신증상 회복 및 건강한 부부 관계, 친목을 도모했다.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을 나들이

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90명은 10월 3일 KT&G복지재단과 서부권역 다문화유관기관과 협력해 양평군 외갓집 체험마을로 다문화가족 가을 나들이를 다녀왔다.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친정부 초청사업



수성구센터가 주관하고 수성구가 주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2013년 수성구 다문

화가족 친정부 초청사업'이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베트남·몽골·중국의 5가정 7명의 가족이 초청돼 가족사진 촬영과 건강검진, 환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받았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한마음 가족캠프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양일간 하이원리조트에서 다문화가족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돕기 위한 '다문화가족 한마음 가족캠프'를 개최했다.

홀트심리상담센터,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교육

홀트심리상담센터는 9월 26일 홀트 꿈동이들과 함께 '나눔 리더 성장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나눔 영상을 시청하고 나만의 나눔 저금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 전주영어원 ●

직원 야유회



직원 야유회를 10월 29~30일 양일간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문수사와 선운사에서 개최했다.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었던 직원들은 심신을 충전하고 아동 복지 실천자로서의 소임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

마포어린이집, 떡 만들기 체험

마포어린이집은 9월 9일 떡 박물관으로 만들기 체험을 떠나 전통 음식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중동어린이집, 중동가족축제

중동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10월 9일 중산농원에서 고구마와 당근을 캐고 가을 운동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홀트어린이집, 가을 소풍



원아들은 10월 2일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동물도 관람하는 가을 소풍을 다녀왔다.

● 전국후원회 ●

전국후원회 해외봉사 펼쳐



전국후원회 회원들과 가족들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로 해외봉사를 다녀왔다. 봉사단은 홀트드림센터 이동과 지역 저소득가정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과 급식, 미용 봉사 등을 펼쳤다.

2013 홀트전국후원회 수련회 열어

2013년도 홀트전국후원회 수련회가 경남후원회의 주관으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남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17개 지역 후원회원 170여 명이 참가해 후원활동 보고와 옥



션 기부행사를 진행했다.

강원후원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장 담그기



강원후원회(회장:신명숙)는 11월 15일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20명과 함께 맛있는 맛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후원회, 입양아동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 소바자회



홀트광주후원회(회장:전항자)는 10월 17일 입양아동 의료비와 양육비 마련을 위한 '일일찻집 & 소바자회'를 열었다.

대전후원회, 커피향이 있는 따뜻한 일일카페



충청사무소와 대전후원회는 10월 23일 카페 베네 세이점에서 입양대상 아동의료지원금을 위해 일일카페를 개최, 많은 개인과 단체의 참여로 1,5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신년계획 10가지

2014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6. _____
7. _____
8. _____
9. _____
10. _____

신년계획 '기부', '정기후원'이 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 의료비, 재활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후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재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지원, 보건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신년계획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http://www.holt.or.kr>



2013년도 홀트 이웃으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5일까지 후원금을 꼭 납부해주셔야 2013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후원자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기부금 영수증 출력

온라인 회원 가입자가 아닐 경우

www.holt.or.kr 접속 ▶ 회원 가입 후 ▶ 후원팀(02-331-7074)으로 온라인 등록 요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 기부금 영수증 출력

*국세청 발급은 2014년 1월 중순부터 이용

문의 1899-0923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출력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 영수증 인터넷 출력 확대로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나 우편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02-331-7074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2012 글로벌어워드 상품대상 수상
 2012 환경닷컴 브랜드어워드 수상
 2013 한국일보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2013 AVING VIP ASIA 올해의 제품

즐겁고
 안전한
 놀이공간

놀이할 수 있는 우리집 안전지킴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머무는 공간
파크론 놀이방매트



충격을 흡수하는 소프트 쿠션
 저탄성 고밀도 소재로 인체의 체중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충격을 분산시켜 서서히 원형을 복원하는 기능이 탁월합니다.



오픈셀 테크놀러지
 수백만개의 고르고 미세한 오픈셀들이 부드럽게 감싸주는 안정적인 지지력으로 신체를 보호해 줍니다.



이중 진공엠보싱
 신체와 매트가 닿는 부분의 접촉감을 좋게 할뿐 아니라 습기 등에 의해 미끄러지는 현상을 막아 줍니다.



안전 기준을 통과한 고급소재
 파크론은 철저한 제품 인증과정을 거쳐 정부가 지정한 품질 및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